

제 58 호

성 가정 주일

1974. 1. 6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신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료】 주의 공현 대축일

(누가 2 : 41~52)

김 종 택 신부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2천년 전에 먼 길을 떠난 세 노인네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안다. 오직 예언서의 말씀만을 믿고 가정의 단란함도 외면한채 사막길을 걸어서 별을 따라나선 세 박사들의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무관심한 예루살렘의 표징, 누추한 말구유에 누워계신 예수님에게서 실망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요지부동한 신앙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가 만일 저 박사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 ① 새로난 왕을 찾으러 고향과 집, 가족과 부모, 사업과 일을 제쳐놓고 용감히 떠났겠는가?
- ② 가령 길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기대에 어긋나는 예로대왕과 학자들의 태도를 보고 되돌아오지 않았는지?
- ③ 베들레헴에 까지 왔다고 할 때, 왕자다운 겹은 하나도 없고 순 거지의 아들 모양인데 무릎꿇고 조배 드렸겠는가?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중에 대다수는 집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길을 떠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되돌아 왔을 것이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분 중에도 환멸을 느끼고 되돌아 왔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보시오. 구세주께서 나신 베들레헴의 외양간은 우리의 성당이다. 구세주께서 누우신 말구유는 감실로 변했다. 베들레헴 외양간의 말구유에 누우셨던 어린 아기, 우리 주 천주께서 지금 축성한 성체안에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존하여 계신다. 제대에 켜진 성체불은 저때 박사들의 길을 안내해 주었던 이 지금 밤낮으로 왕중의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을 비추어 주고있다. 그런데 저를 조배할 박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 박사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가 와서 구세주이신 우리의 왕을 조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당을 소홀히 여기는 지 모른다. 박사들과 같은 신앙이 있으면 주일미사 시간을 잘 지키고, 평일에도 가끔씩 미사에 참여하며, 경건한 태도로 성체를 자주 영할 것이다.

신앙의 어떤 진차 운전사는 하루에 수십번 성당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는 지나갈 때마다 공손히 모자를 벗고 마음속으로 성당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인사 드림으로써 손님들에게 좋은 표양을 주었다 한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언과 별의 나타남으로 신앙을 얻어 만년을 무뎠고 예수아기를 찾아 조배하였듯이 우리도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신앙을 굳게하여, 미사때마다 제대상에 제병과 포도주형상으로 새롭게 탄생하시는 예수 아기를 찾아 조배하고 사랑 합시다.
 (덕진 성당 주임신부)

※이주일의 미사※

1. 개혁식

입당송 보라, 임금이신 주께서 오시니, 나라와 권세와 주권이 그 수중에 있도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 60 : 1-6, 경향잡지)
 하느님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났다.

증계송 ◎하느님, 만백성이 당신께 조배드리리이다.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

제2독서 (에페소 3 : 2-3, 5-6, 성서 P. 440)

이방인들도 약속될 바를 함께 받는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등에서 그의 별을 보고 주를 조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복음 (마테오 2 : 1-12, 성서 P. 2)

동쪽 나라에서 임금님을 조배하러 왔노라.

□ 신자들의 기도

- 1. 주여,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평화의 책임과 의무를 깨닫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 2. 이웃에게 좋은 표양을 주라고 가르치시는 주여,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에 책임을 느끼게 하소서. ◎
- 3. 위로자이신 주여,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량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소서. ◎ + 주여, 우리들의 평화는 당신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참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우리주.....◎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주의 공현 감사송

영성체송 동쪽에서 주의 별을 보았기에, 예물을 가지고 주께 예배드리러 왔나이다.

4. 폐회식

※ 숲 정 이 산책 ※



어흥! 만년에 표미! 만부! 즐해라

평화는 당신에게도 달려있다

평화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평화는 인간에게 달려있으므로, 평화는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평화의 주체자, 장본인 동인(動人) 이라면 평화는 가능하다. 평화는 이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 내부의 수많은 "주관적" 조건들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평화는 인간적이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평화도 아닐 것이다. 평화는 인간의 자유로부터 솟아난다. 평화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한 객관적 조건들을 무시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생존과 생명은 자연자원 무기물, 식물, 대기등의 올바른 개발에 달려있다. 이같은 자원들의 공정한 분배, 올바른 사용 등에 달려있다. 생태학이나 대기(大氣) 문제, 미개발, 민족들간의 경제적 교류, 영해권 문제, 인구 문제, 도시화 문제, 사회유동성, 이민 등이 현대가 당면한 위급한 객관적 사실들의 일부이다. 이 객관적 사실들은 인류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인류역사의 성공과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들 자체가 평화를 위한 인간적 조건이기도 하다.

민족들 사이에, 개인들 사이에, 일치를 이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기구가 창설되기를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외교관계, 조약, 협정, 규약,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관계망, 교육 정보수단, 입법 등을 일치시키는 총괄적인 기구가 요망된다.

인간은 자신의 발명품과 업적이나 기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주인이 되어야 한다.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있다.

오늘날 평화는 가장 광범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성공적인 사회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치와 정의와 발전이다. 이 막중한 세계적인 목표를 위하여는 전인류가 그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평화의 운명은 정치, 노동, 홍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달려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 인류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평화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있는 의무이다.

이상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공통적 관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1974년 세계평화의 날 주제는 평화를 위한 각 개인의 인격적 기여를 강조한다.

평화는 당신에게도 달려있다.

평화는 당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달려 있는 것이며, 모든 이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평화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수치스럽기 이를 데 없는 책임회피로 초래해서는 안된다. 계획된 응답, 의식적이며 자유로운 기여가 각자의 인격에 따라 요구된다.

평화를 위한 활동의 기초

지적 지식 수준 위에

현대인이 자신의 업적과 우주의 영장이 되려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 평화란 단순히 상쾌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론과 실제에 있어 정확하고 다양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의 일부를 인격적 훈련에 바치고 지성에 투자해야 한다.

마음과 의지의 수준에서

각자는 또한 마음이라 불리우는 심리적 요소도 지녀야 한다. 그것은 감정과 선(善)뿐 아니라 충동과 욕망과 영감의 통제와, 평화와 정의의 발전에 관하여 자세한 활동을 설명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의지의 결정도 포함한다.

양심의 수준에서 평화를 위한 윤리적, 영신적 조건들

우리는 의적 생활이 너무도 부유해서 내적 생활이 너무나 빈약하다.

인간은 의식적 주체이므로 명상과 관상을 회구하는 간절한 요구가 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개념이며 전례(前例)없는 전망(Vision)이다. 그것은 인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공동생활, 역사의 길, 세계의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다.

1. 당신 안에 있는 평화-받아 들여진 평화

그러나 각자는, 주관적 의식이나 심리적 내성(內省)의 행위를 넘어 서야하며, 인간의 윤리적 양심에로 나아가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우리들 자신안에

일어나게 하려면, 내면에서부터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음이 회개, 속죄 회두라고 일컫는 것이며,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탄생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마음에 기초를 둔다. 각 사람은 다름이들과 평화를 재건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 안에 평화를 재창조해야 한다.

평화 속에, 진리 속에 살기, 참되기, 언행일치를 절대적으로 노력하기, 그리스도의 평화의 세 가지 요소인 수난(악의 포기)과 죽음(자기부정)과 부활(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을 자신 안에 체험하기, 이 모두가 우리의 평화를 이룩할 요소들이다.

2. 당신을 통한 평화-평화를 이룩하는 자.

평화(남들의 평화)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기본 과정은 사람의 삶의 전과정을 통하여 평화와 정의와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스스로 평화의 주체자가 되고, 각자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남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 역시 평화의 주체자가 되게 해야 한다. 크리스찬은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며 그리스도 신비체의 한 지체이므로 그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느님의 평화는 사람들의 평화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의 평화는 하느님의 평화를 필요로 한다.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질 전문)

대 동 페인트 상사
지 지 물 상 사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⑤ 5986
임 정 원 (도민교)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잡쌀떡 준비!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찻집 ⑤5013
김 원 준(야고버)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⑤ 6794
이 현 주(메테사) 올림

제 4 지구 6개 분당 소식

[소]

1. 주교단 성년 피정 (10일~12일, 서울 교리 신학원) 성년 피정이 큰 성과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2. 새해 인사에 57명 참석 (1일, 가톨릭 센터)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 10명, 수녀님 2명, 교우들 45명이 참석하여 새해의 앞날 전진을 다짐하고, 우정을 두텁게 했습니다.
3. 전주 시내 중·고등부 각셀(Cell)지도자 및 의장 모임(다음 주일 오후 2시, 해성 학교 종교감실)
지도자 및 의장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주보 57호 2면 대화의 광장란 참조)
4. 신부 인사 발령
권영균 (삼례에서 둔울동으로) 서석기 (둔울동에서 삼례로) 박창진 (중앙보좌-새 신부)
박진량 (대학생 연합회 지도) 문정현 (중·고등 연합회 지도) 김중걸 (교리교사 지도)

[식]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직
@3874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구역 회장님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람.
2. 중·고등 학생 피정 (7~8일, 회비 300원)
3. 일반 교우 피정 (14~17일, 1일간씩, 회비 200원)
많은 교우들의 참가를 바라며 구역회장님들의 접수에 협조 요망함.
4. 꾸리아 월례회 (12일 <토> 오후 3시)
5. 신용 조합 소식
① 통장 제출 요망 (73년도 출자금 이익배당)
② 조합에 통장 보관하신 분은 속히 찾아가세요.
□ 교무금 신입 현황 3,157,250원 (100% 조과)
지난 주일 봉헌금 40,051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및 평화의 날 행사 (오늘 공식 미사 후)
사도회 임원, 구역회장, 교문, 감사 전원 참석 바람
2. 아동 동계 교리 및 첫 영성체 준비 (7일 오전 10시)
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시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 신자 교리 (매 주일 공식 미사 후, 수요일 저녁 미사 후)
4. 판공 심사 못 보신 분은 매 토요일 저녁 미사 후와 주일 공식 미사 전에 보십시오.
5. 교무금 완납하여 분당과 교구운영에 협조 합니다.
9.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봉헌 하셨습니다. 다같이 감사드립니다)
김글라라(화자)여사-제명 1년분 봉헌 (27,000원)
장발바라(미라)여사-미사주 1년분 봉헌 (5,000원)
유마리아(순자)여사-성초 1년분 봉헌 (6,000원)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누계 235말 8되)
지난 주일 봉헌금 15,39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부녀회 피정 신청 (10가지)
때: 12일 정오 출발-14일 정오까지
곳: 광주 피정의 집
※ 새해 신앙 생활을 피정으로 굳혀 보십시오.
□ 지난 주 신축 성미 2말 5되 (누계 114말)
열말 연시 특별 봉헌금 5,9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3,50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신용 조합 정기 총회 (16일 오후 7시)
신용 조합 임원회의 (오늘 10시 미사 후)
2. 평화의 날 강연회 (오늘 공식 미사 후)
주제: 평화는 당신에게도 달려 있다.
3. 영세 일 (매월 끝 토요일)
4. 미사 시간
평일-오전 6시반(월.수.금), 오후 7시반(화.목.토)
주일-오전 10시, 오후 4시, 7시반
☆ 축 결혼 ☆ (14일 오전 11시)
신랑 최 규선군과 신부 유 희순양
□지난 주일 봉헌금 8,05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 후)
상임위원, 구역장, 반장, 교문 전원 참석 바람
2. 자모회 (오늘 공식 미사 후)
3. 신용 조합 정기 총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 후)
조합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4. 월말 유지 현황 보고 (계시판 참조 바람)
총 수입 436,685원
총 지출 366,391원
교구 총 납부금 321,0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9,85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사도회 (오늘 저녁 미사 후, 사제관에서)
회장단, 부차장, 구역장 참석 요망
2. 부활절 영세자 선정식 (다음 주일 저녁 미사 후)
성당에서 예절로써 선정식을 함
3. 예비신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저녁 미사 후)
4. 유아 영세식 (매월 첫 주일 공식 미사 후)
유아의 부모님의 참석하에 영세식이 있음.
5. 성심 유치원 원아 모집 (1월 20일~2월 25일)
□교무금 신입 현황 2,774,800원 (503세대)
부녀부 성미 1말 3되, 현금 누계 54,685원
성탄 구유 성금 2,97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5,162원, 감사합니다.

퀴즈 놀이 정답자 명단

- 특상 (3회 정답)...김순례, 김화영
애석상 (3회 정답이나 기한위반)...황진남
차상 (2회 정답)...박순복, 심은희, 양승미, 양희석
오승희, 이경자, 이금옥, 이순연, 최옥주
입선 (1회 정답)...김승훈, 김용식, 김장환, 김희태
박명희, 박소현, 박안나, 박은자, 백용희, 범진순, 선종운, 오경은, 오희원, 이영남, 이화숙, 전정봉, 정순자, 정은주, 정진홍, 정관래
조재완, 조제연, 최이섭, 한복해, 황연규
가족상...(한 가정에서 두분 응모)
김장환, 박명희, 양희석, 정은주
특별상...김덕환 (전주 중앙 국교 1의 4)
※ 정답자 전원에게 상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 상품 전달은 7일 해성 학교에서 있습니다.

퀴즈 놀이 정답

1. ① 겨울 (겨울의 오자, 제49호 1면 제목)
② 6회
2. ① 동남사프
3. ① - 78,826,400원, -, 10분당.
- 중앙 2,519,000원
② 중앙, 창인동, 둔울동, 신태인, 남원, 진안